



## 반세기 여향 목포 지킴이 지역문화예술 꽃 피운다

**예총 목포신안지부 을 사업과 과제**  
예향 발전사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교류전·국악대전...연중 내내 공연 전시  
문화 사각지대 해소 등 예산 확보 시급

한국 예총 목포신안지부(이하 예총)는 시립 예술단체와 함께 '예향 목포'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꼽힌다. 지난 1958년 창립돼 '시민이 예술인이다'는 가치 아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하며 55년을 시민과 함께 호흡해 왔다.

그동안 산하 협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부를 9개로 늘리고 2007년에 신안지부까지 귀속시키는 등 성장 동력을 구축해 회원수가 1300명에 달할 만큼 성장했다.

이에 문화예술 융성시대 접병으로 부상한 예총을 통해 '예향 목포'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문화예술 인구 저변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짚어 봤다.

◇문화예술 융성시대 선도하는 예총의 현주소= 예총이 이처럼 급성장한 배경에는 3선 연임을 통해 위상을 제고시킨 임점호(61) 현 회장의 11년 열정이 자리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임 회장은 예총 역대 회장들의 헌신과 노력을 후배들이 본받도록 하는 '원로와 젊은 작가들의 소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다양한 소통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밑거름이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총은 올해 '예향 목포'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야심찬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역대 예총 회장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남농 허건을 비롯해 우하 김정재, 소하 김갑기 등 작고 예술인들을 기념하는 추모비와 추모 전시는 물론 예총의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꾸며 예향 목포의 발전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갖바위 문화타운에 마련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목포를 빛낸 작고 문인들의 '추모 문학의 밤' 행사를



소하 김갑기 화백 1주기 추모전



목포 예술제 공연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예술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온 예총은 올해도 지역문화예술 융성을 위해 세부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질적·양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는 전시분야는 무게감 있는 '영·호남 교류전'을 필두로 자매도시인 '영주·마산·청주 교류전'을 비롯해 '전남 사협전', '산과 강 흘러 바다로 수석전' 등 다양한 대관전시로 예술적 성찬을 준비하고 있다.

관객만족의 극치를 선사할 공연분야로는 전국 국악인들의 숨은 실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전국 국악대전', 꿈다

락 사업 일환으로 연중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낙도 섬 공연', 무용인들의 제전인 '전국 무용축전', '학생 음악 경연대회와 전남 음악콩쿠르대회' 등 지역 예술인들의 저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감성과 힐링을 만끽하는 좋은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목포 예총 소속인 '평양 예술단'은 시민들에게 생소한 북한 예술공연을 펼쳐 문화적 수용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대중 추모 6주기 평화백일장 대회와 전국 바다 사생대회, 전국 사진 촬영대회 등도 추진해 문화예술 창달을 지향할 계획이다.

◇수용성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과제는= 넘어야 할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이다.

타 지역과 달리 항토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사업이 중앙에 집중돼 고향을 지키는 예술인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예술인들이 부지기수"라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향 목포의 명맥을 잇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젊은 피 수혈이다. 이대로 간다면 예총은 5년 이후 노령화가 최고조에 달해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2015년을 '문화예술 융성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예총 영역확대는 물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르를 다양화 시키고 입회에 필요한 문턱을 낮춰 준회원제를 도입하는 등 문호를 대폭 넓혀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도와 신안군 등 협의를 거쳐 연간 20회 정도 펼쳐 온 '낙도 찾아가는 공연'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예향 목포를 이끌어 온 쌍두마차로서 사명감을 갖고 난장군으로 나아가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예총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버스터미널 인근의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1만t 용량의 상동 초기 우수 처리시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목포 저지대 상습침수 걱정 끝

市, 278억원 들여 관로 설치·하수처리 증설

목포 도심 저지대가 상습 침수에서 벗어나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침수피해 예방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7개 사업에 사업비 27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저지대 침수 예방과 재해 방지를 위해 상동에 157억원을 들여 우수 관로 125m, 1만t 용량의 저류조 등을 설치한다. 오는 2017년 사업이 끝나면 목포 버스터미널 앞 저지대 상습침수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악 하수처리장은 오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하루 1만2000인 하수처리 용량을 2만2000t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또 하루 3만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복합 하수처리장에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법적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라 고도처리 시설이 설치된다.

이 사업은 국비 53억원을 지원받아 설

계용역을 마치고 대양산단 준공 후 발생될 오·폐수와 삼향동 대박산 마을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복합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시설도 추진된다.

중계펌프장 2개소, 압송관 5.1km를 매설하는 대양·이로 연계처리 시설사업은 현재 공정을 45%로, 오는 2016년 대양산단 준공 시기에 맞춰 완공된다.

이와 함께 목포시의 최대 속원사업 중의 하나인 내항 인근 동명동과 만호동 일대의 해수 침수방지 사업과 대반동 해수욕장 복원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만조시 해수역류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와 해변침식으로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한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비 111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목포시 이상호 하수과장은 "7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2017년에는 저지대의 상습침수와 환경오염 문제가 완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 해양대 해양안전기술 연구센터 영문학술지 창간

목포 해양대학교 부설 첨단 해양안전기술 연구센터(센터장 박계각)가 영문학술지를 발간했다.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계각 교수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항로표지기술 협회(이사장 박찬재), 출판전문업체와 함께 영문 학술지를 창간했다.

학술지는 IMO(국제 해사기구)가 해양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전자 항해 시스템'(e-Navigation System)과 해양운경제를 다루는 최초의 전문학술지다.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목포해양대 박

계각 교수와 미국의 저명한 해운경제학자인 Wayne Talley 교수와 공동으로 맡았다.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계각 교수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해양 사고는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조선, ICT(정보통신기술), 선박운항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학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영문학술지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음악협회 정기 연주회



###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들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 상가 건물

- 회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25억(보2억 월1,000만)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 대지, 전용기능 녹지, 전/답

- 남구 노대동 대지 405㎡ 8억5천
- 광산구 우산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618㎡ 1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광산구 삼도동 1중주거지역 전 6,900㎡ 19억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32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000원 (아직장 주가장 적합, 시설완비)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 아파트 매매

#### ▶한양아파트(남구 주월동)

- 1층 / 28평
-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
- ◆ 매매 1억2500만원
- ◆ 전세 1억500만원
- ◆ 임대 5000만원/30만원

#### ▶현진 애버빌(광산구 수완동)

- 1층 / 53평
- 학군최상 / 투자가치 좋음
- 내부 깨끗
- ◆ 매매 4억9500만원
- ◆ 전세 4억500만원
- ◆ 월세 2억 / 100만원

## 상가 임대

#### ▶서구 치평동 중흥 스카이31

- 1층 / 31평
- 800세대 / 시청입구
- 우측 GS편의점 입점
- 즉시 임점가능 / 상권 최상
- 권리금 없음(미용실, 화장품, 옷가게 적합)
- ◆ 임대 5000만원 / 350만원

## 땅 매매

#### ▶광산구 우산동 210-32

- 답 900평
- 생산녹지 / 나무식재 가능
- 투자가치 좋음
- ◆ 융자 2억4000만원
- ◆ 매가 4억500만원

010-8676-1900